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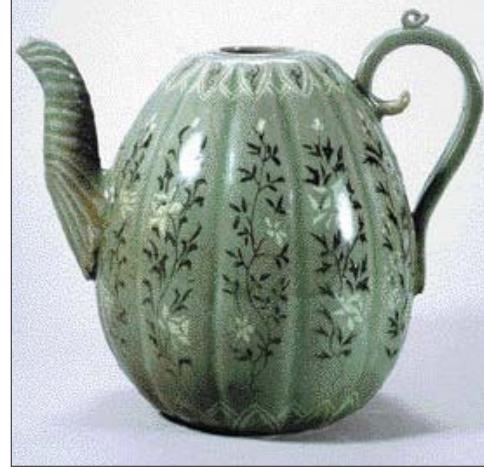
강진 청자박물관 억대 명품 '즐비'

강진 청자박물관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의 백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최근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을 새롭게 꾸몄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지난 2005년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 때 21개국 정부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청자 상감모란문의 모델 격인 청자합과 오리, 학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상설전시실은 청자의 밟달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각 가마터에서 지표 조사된 청자 도편과 함께 시대별 완품 청자유물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돋우고 있다.

국내 유일의 청자박물관에는 역사와 몸값을 자랑하는 진품 청자들이 속속 자리하고 있다. 현재 청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진품은 167점으로 60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최근 2년간 문화재급에 속하는 진귀한 명품들이 대거 구입됐다.

그중에서도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참외모양의 주전자인 '청자상감 모란국화 연화문 과형주자'는 구입 가격이 15억원대로



청자상감 모란국화 연화문 과형주자



청자합



청자 앵무문 대접

진품 총 167점 60억원대 전시

관람객 눈높이 맞춰 운영키로

문화재급에 속한다. 이 청자는 다양한 꽃무늬가 상감돼 있으며 몸체에는 참외모양의 12개의 골이 파져 있으며 주를 면마다 연꽃과 모란, 국화가 새겨져 있다.

지난해 초 구입한 '청자상감 유로수금 문병'도 시가 1억5천만원대의 걸작품으로 꼽힌다. 높이 35.3cm의 대작으로 몸체는 여섯개의 문양 대로 나뉘어져 있다.

청자박물관은 또 지난달 28일 국립 해양유물전시관과 전통문화 유산 이해 증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해저 밭굴 유물의 정보교환과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전통문화행사 공동 개최와 상호 이해 증진, 공동 발전 등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청자박물관은 국립 해양유물전시관의 협조를 받아 오는 8월 제 13회 강진청자문화제 기간에 태안 앞바다 밭굴 특별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윤순학 강진청자박물관장은 "올 해부터는 박물관의 모든 운영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나갈 계획"이라며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획전시를 비롯해 청자 만들기 등 체험관을 확충하고, 새로운 국보급 청자를 더 구입해 관람의 질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함평 나비엑스포 세계적 축제로

전남 22개 시·군, 성공 개최에 힘 모으기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등 전남의 현안을 22개 전·시·군이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전남도는 6일 함평군청 회의실에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고 광주·전남방문의 해와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전국체육대회 등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함평 뿐만 아니라 전남 관광과도 직결되는 올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인식을 함

께 하고 전남도와 전 시·군이 홍보 및 입장권 예매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한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문광부가 선정한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고흥우주센터 우주선 발사, 전국체전, 광주비엔날레 등과 연계해 전남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대형 행사의 성공을 위해 숙박업과 음식점,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 제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 방문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숙박업, 음식점,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 정부 192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전략적 규제개혁 추진, 지방구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 도시민 유치 적극 추진,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했다.

/체육종기자 chae@kwangju.co.kr

'행복한 도시' 해남군 大賞

해남군이 2008년 행복한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은 한국미디어포스트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후원한 행복한 도시 평가에서 ▲노인여가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어려운 가정과 사랑의 결연 ▲복지상담실 운영 ▲국제결혼 이주여성 상설교육 등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펼친 점이 인정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유통개혁 대상 · 6년 연속 전남쌀 톱 10

나주 동강농협 "경사 났네"

나주 동강농협이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는 등 일류농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강농협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가 전국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농산물유통개혁'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동강농협 브랜드인 '드림생미'

가 지난 2003년부터 6년 연속 전남쌀 톱 10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나주 동강농협은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농산물유통개혁'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동강농협은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복분자 단지 17㏊를 추가 조성해 9억원 정도의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추 생산을 위해 고추세척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동강농협의 대표 브랜드 쌀인 '드림생미'는 4회에 걸쳐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대회에서 전국명품 브랜드쌀에 선정됐으며 6년 연속 전남쌀 톱 10에 뽑혔다.

김재명 동강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협이 적극 앞장서고 있다"며 "전 직원이 굳은 신념으로 조합원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농협은 올해에도 복분자 단지 17㏊를 추가 조성해 9억원 정도의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추 생산을 위해 고추세척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실전 훈련으로 신속 대처"

백정부 함평의용소방대장

백정부(55) 신임 함평은 의용소방대장이 5일 취임했다.

백 대장은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풍수해나 산불진화 등 정기적인 실전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 대장은 함평군 생활체육회 협의회장과 JC(청년회의소)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혁신도시 예정지 개발 제한 완화

나주시, 농가주택·창고 신축 가능해져

나주시 금천면을 비롯한 산포면 일대 1천250만㎡ 규모의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내려졌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나주시는 6일 혁신도시 개발지역

중 주택만 허용되고 농지는 허용되지 않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내에서 농가주택과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행위 제한을 완화했다.

세 일 글

"외국어·창의력 교육 강화하겠다"

김광호 함평교육장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현신과 봉사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광호(57) 함평교육장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외국어와 창의력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생태체험 학습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출신인 김 교육장은 전남 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진도,



영광실고 교장과 전남도 교육청 장학사·장학관, 과학산업교육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중등교사인 부인 허연숙씨와 사이에 1남2녀가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대 공대 광양 이전 계속 추진

장만채 총장 "순천대에 생명줄과 같은 것"

장만채 순천대 총장은 6일 "공대의 광양 이전은 순천대에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며 "이 생명줄을 없애 버리려는 것은 순천대를 죽이고 순천시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총장은 이날 순천대 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순천대 발전 방향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순천대 같은 규모의 지방 국립대학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특성화 뿐이다. 광양의 광양 이전 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총장의 발언은 순천시와 갈등을 빚었던 공대의 광양 이전 계획을 계속 추진하자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 총장은 "순천대는 이대로 가다가 2020년에는 없어지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열린 '순천대 발전 방향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순천대 같은 규모의 지방 국립대학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특성화 뿐이다'면서 광양으로 있는 광양으로 공대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운 배경을 설명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브랜드 OULET 할인매장

점포정리 원가판매 70% OFF

전화문의 226-7567

인터넷문의 010-8550-0567



하나 부동산

부동산 전문가

한국 부동산 리서치

부동산 리서치